■ 그림 여행



눈보라-항구 입구의 증기선

(Snow Storm-Steam Boat off a Harbour's Mouth c. 1842)

조지프 멜로드 윌리엄 터너 (Joseph Mallord William Turner 1775-1851)

> (캔버스에 유채 123 cm x 145 cm 런던 테이트 브리튼 미술관)

19세기 영국 화가 조지프 멜로드 윌리엄 터너는 역 사상 가장 위대하다고 일컬어지는 풍경화의 대가였 다. 15살에 정식으로 영국 왕립 아카데미 전시회에 작품을 전시하며 천재성을 나타냈다. 초기에는 풍경 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정통 풍경화로 시작했으나, 자신의 작품세계를 이루어 가며 점차 자연의 웅장함 이 거의 추상적인 느낌으로 화면을 지배하는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.

터너는 유화를 수채화처럼 그렸다. 유화 물감을 최 대한 엷게 배합하여 투명한 느낌이 나게 했으며, 덧 칠을 무시하고 최대한 빠르게 그렸다. 그 결과, 터너의

위탁판매도 해드립니다

풍경화는 그 풍경이 보여지는 순간의 분위기를 그대 로 포착했다. 여기 그림 속에는 눈보라 폭풍 속에 증 기선이 방향을 잡으려 애쓰고 있는 순간을 그렸다. 배 는 파도와 바람 속에 사투를 벌이고, 눈보라는 폭풍 에 흩날러 뿌연 수증기처럼 화면을 감싼다. 자유로운 붓질은 광대한 자연의 기백을 그대로 드러내 주며, 화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하늘과 바다에 파도와 바람 과 빛이 그대로 한 편의 심포니를 이루며 울려 퍼진다.

인공적인 건축물이나 인물 대신 자연의 변화무쌍함 을 기록한 터너의 그림은 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인 상파 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. 일부 미술 비평 가들은 터너의 그림이 20세기에 나타날 추상화를 예 고했다고 평하기도 한다. 하지만 터너의 말년에 당대 의 사람들은 그의 자유분방한 그림을 이해하지 못했 다. 시력이 나빠졌다고도 했고, 정신이상을 의심하기 도 했다. 그들의 혹평에 아랑곳하지 않고 터너는 소신 대로 그림을 그렸고, 자신의 소장 그림 전체를 대영 제 국에 기증했다.

터너는 상류계급 출신이 아니었으므로 오히려 자유 롭게 살았으나 사생활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 일종의 기인 취급을 받기도 했다. 개인적인 삶의 드라마에 무 심했던 그의 성향이 자연을 경외하며 숭배한 그의 그 림 세계를 가능하게 했는지도 모른다.

마지막으로 테이트 브리튼에 가 보았을 때가 겨울 이었는데, 미술관은 한창 비수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 고 있었다. 많은 전시관이 임시 폐쇄 중이었으나 터너 전시관은 그대로 열려 있어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터 너의 그림을 실컷 보고 왔다. 사람에 둘러 싸이지 않 고 오직 그림 앞에 서서 그 속의 이미지에 함몰되는 관람이 터너가 원한 그림 보는 방식이 아니었을까 생 각하면서.

《김동백》



